

FIRST LANGUAGE KOREAN

0521/13

Paper 1 Reading

May/June 2017

INSERT

2 hours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for use with the Question Paper.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This Insert is **not** assessed by the Examiner.

먼저 다음 설명을 잘 읽으십시오.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이 첨부 시험지 공란에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 쓴 연습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and **2** blank pages.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아래 글은 채만식이 1938 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치숙>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키,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머, 말두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썽……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5

자, 십 년 동안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몸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간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긴 막대 내저어야 지푸라기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10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자잘한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루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수로 남은 인생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15

<중략>

그래 다아 죽어 가는 반송장을 업어 오다시피 해다가 뉘어 놓고,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부시대고 날뻘 덕에 병도 차차로 차도가 있고 그러더니 인제는 완구히 살아는 났지요. 뭐 참 시방은 용꼴인걸요, 용꼴. 20

부인네 정성이 무서운 짹디다.

꼬박 삼년이군. 나 같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오신대도 그짓 못해요.

<중략>

아주머니의 은공을 갚자면 발에 흙이 묻을세라 업고 다녀도 참 못다 갚지요.

그리고 저러고 간에 자기도 인제는 속 차려야지요. 허기야 속을 차려서 무얼 하재도 전과자니까 관리나 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 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막 벗어붙이고 노동이라도 해야지요. 25

대학교 출신이 막벌이 노동이라게 풀 가관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머.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종조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기울지를 안해서 나도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앓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먹을 게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요 보통학교 사 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환히 트인 내게다 대면 거지만도 못하지요.

아, 그런데 글썽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맘보를 먹고 하니, 내 참 기가 막혀! 35

아니, 그놈의 것하구는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인고?

그러나 그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붙잡혀 가서
 정역 사는 놀음? 40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구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나는 것도 아닌 하릴없이 부랑당쟁니다.

<중략>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깐 이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45
 들여서 따루 장사를 시켜 줄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니 며,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일본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50
 다아 알아서 압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일본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침이요?" 55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결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꿈 제 분수대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라컨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60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65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일인들 하구두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70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애!"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 이랬지?" 75
 "네."
 "앞길이 환하니 띄었다구 그랬지?"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네." 80
 "네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라곤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85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된단 말이다."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Text B

아래 글은 조지훈이 1960 년에 발표한 글로 '변절자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지조론>의 일부입니다.

지조란 것은 순수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고집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엄을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하루 아침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곤란과 고통을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조 없는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하고 연민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의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중대한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중략>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학식과 견문은 기술자와 장사꾼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물론 지사와 정치가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의 혁명가와 정치인은 모두 다 지사였고 또 지사라야 했지만, 정당 운동의 단계에 들어간 오늘의 정치가들에게 선비의 삼엄한 지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인 줄은 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 정당 운동을 통한 정치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정치인 이상, 백성을 버리고 백성이 지지하는 공동 전선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흔들림은 무지조로 규탄되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권모술수에 능한 직업정치인보다는 지사적 품격의 정치지도자를 절실히 소망한다. 그리하여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고 의연한 지사 정치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 모든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지조의 깊이를 요청하고 변절의 악풍을 매섭게 욕하는 것은 백성의 눈물겨운 호소이기도 하다.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바람만 불면 단팥죽 장사로 간판을 남 먼저 바꾸는 것을 누가 욕하겠는가. 장사꾼,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 태도는 이 길이 오히려 바른 길이기도 하다. 오늘의 변절자도 자기를 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처한다면 별문제다. 그러나 더러운 변절의 정당화를 위한 엄청난 빈말을 늘어놓는 것은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먼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대낮에 큰 길에서 돌아앉아 볼기짜를 까고 대변을 보는 격이라면 점잖지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인가. 30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선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 안 된다. 정신의 자존을 위해서는 자기학대와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이는 지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조의 매우 향기를 지닌 분들은 심한 고집과 이상한 버릇까지도 지녔던 것이다. 신단체 선생은 망명생활 중 추운 겨울에 세수를 하는데 곳곳이 앉아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다 얼굴을 씻기 때문에 찬물이 모두 소매 속으로 흘러 들어 갔다고 한다. 어떤 제자가 그 까닭을 물으매, 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35

<중략>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워 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하는 변절은 과거의 잘못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변하는 것을 변절이라 하지 않고 좋고 바른 데서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변절을 변절이라 한다. 40

일제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 운동으로 바꾼 이가 있거니와 그런 분을 변절이라고 욕하진 않았다. 그러나 독립 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전향한 이는 변절자로 욕하였다. 권력에 붙어 벼슬하다가 야당이 된 이도 있다. 지조에 있어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변절자의 비난은 돌아가지 않는다. 45

나머지 하나 좁은 의미의 변절자, 비난 불신의 대상이 되는 변절자는 비집권 세력인 야당 전선에서 이탈하여 여당의 권력에 몸을 파는 변절자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다. 50

<중략>

근 30년 동안에 우리 나라는 변절자가 많은 나라였다. 일제 말의 친일 전향, 해방 후의 남로당 탈당, 또 최근의 민주당의 탈당, 이것은 이십이 넘은, 사상적으로 철이 난 사람들의 주책없는 변절임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감당도 못할 일을, 제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민족이니 사회니 하고 나섰더라 말인가. 55

<중략>

도도히 밀려오는 망국의 타류— 이 금력과 권력, 사악 앞에 목숨으로써 방과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조의 함성을 높이 외치라. 그 지성 앞에는 사나운 물결도 물러서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천하의 대세가 바른 것을 향하여 다가오는 때에 변절이란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이완용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 먹어도 자기를 위한 36년을 내다보는 눈은 가졌었다.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에 뒤늦게 팔리는 행색은 딱하기 짝없다. 배고프고 욕된 것을 조금 더 참으라, 그보다 더한 욕이 변절 뒤에 기다리고 있다. 60

BLANK PAGE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ie.org.uk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